



국어
3-1

서술형·논술형 평가

8. 의견이 있어요

(국어 220~223쪽)

초등학교

학년 반 번

이름: _____

※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자: 아씨가 바느질을 잘 해내는 것은 다 내 덕이라고. 옷감의 넓고 좁음, 길고 짧음은 내가 아니면 알 수 없어.

가위: 아니, 내 덕은 몰라라 하고 형님 자랑만 하느군요. 옷감을 잘 재어 본들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? 내가 나서서 옷감을 잘라야 일이 된다고요.

바늘: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요. 내가 이 솔기 저 솔기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되지 않나요? 내가 없으면 옷을 만드는 바느질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.

홍실: 호호호, 실이 없는 바늘이 무슨 일을 하겠

니? 한 땀 반 땀이라도 실이 들어가야 하지 않니?

골무: 에헴, 나도 말참견 좀 해야겠다. 중요함으로 치면 나만 한 이가 또 없지. 아씨 손 다칠세라 밤낮 시종드는 것도 바로 내 몸이야.

인두: 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. 들쭉날쭉 울퉁불퉁 바느질 한 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뽀족 뽀족 다듬어서 제 모양 잡아 주는 것이 누군데요?

다리미: 나도요.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로. 구겨지고 접힌 곳을 내가 말끔히 펴 주어야 하지요. 그래야 옷도 맵시가 나지요.

(1) 인물의 말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서 문장을 완성하시오.

→ 자, 가위, 바늘, 홍실, 골무, 인두, 다리미는 아씨가 _____ 을 할 때 사용하는 일곱 동무로, 모두 자기가 가장 _____ (라)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.

(2) 다음 인물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세우는 까닭을 쓰시오.

인물	의견에 대한 까닭
바늘	
골무	

(3) 일곱 동무 중 하나를 골라, 그 인물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.

※ 예시답안

(1) 바느질, 중요하다(소중하다, 최고다)

(2) • 바늘이 있어야 옷을 꿰맬 수 있기 때문이다.

• 골무가 없으면 아씨가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.

(3) 나는 실과 같은 생각이다. 왜냐하면 실이 있어야 천을 튼튼히 묶을 수 있기 때문이다.

< 읽기자료 > 국어 나-220~223쪽

아씨방 일곱 동무(이영경)

옛날에 바느질을 즐겨 하는 아씨가 있었습니다. 아씨는 늘 일곱 동무와 함께 바느질을 했습니다. 그 일곱 동무는 자, 가위, 바늘, 실, 골무, 인두, 다리미입니다.

하루는 아씨가 낮잠이 들었습니다. 그때 자 부인이 큰 키를 뽐내며 말했습니다.

“아씨가 바느질을 잘 해내는 것은 다 내덕이라고. 옷감의 넓고 좁음, 길고 짧음은 내가 아니면 알 수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고!”

그 말을 듣고 가위 색시가 입을 삐죽이며 따지듯이 말했습니다.

“아니, 내 덕은 몰라라 하고 형님 자랑만 하는군요. 옷감을 잘 재어 본들 자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? 내가 나서서 옷감을 잘라야 일이 된다고요.”

그러자 앉아서 듣고만 있던 새침데기 바늘 각시가 따끔하게 쏘듯 한마디 합니다.

“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요. 내가 이 솔기 저 솔기 꿰매고 나서야 입을 옷이 되지 않나요? 내가 없으면 옷을 만드는 바느질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.”

멋쟁이 홍실 각시는 코웃음부터 한 번 치고 제법 여유 있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.

“호호호, 실이 없는 바늘이 무슨 일을 하겠니? 한 땀 반 땀이라도 실이 들어가야 하지 않니? 그러니까 나아말로 진짜 주인공이 아니겠어? 호호호!”

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던 골무 할미가 말합니다.

“에헴, 나도 말참견 좀 해야겠다. 중요함으로 치면 나만 한 이가 또 없지. 아씨 손 다칠세라 밤낮 시종드는 것도 바로 내 몸이야. 내가 빠져서는 안 되지. 암, 그렇고말고.”

이때 나이가 좀 어린 탓에 참고 듣고만 있던 인두 남자가 불쑥 나서며 말합니다.

“모두들 자랑이 너무 지나치군요. 들쭉날쭉 울퉁불퉁 바느질한 것을 구석구석 살피고 뽀족뽀족 다듬어서 제 모양 잡아 주는 것이 누군데요? 나만 한 일꾼이 없으니 그만들 해 두어요.”

다리미 소저는 그제야 용기를 얻었는지 조곤조곤 말을 늘어놓아 봅니다.

“나도요. 인두 언니와 마찬가지로요. 구겨지고 접힌 곳을 내가 말끔히 펴 주어야 하지요. 그래야 옷도 맵시가 나지요.”